

야구중계 틀어놓고 있다가 “아, 지금 시작인 줄 알았는데 3시간 뒤네” 같은 황당한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죠. 특히 해외 중계까지 같이 보는 사람은 더 그래요. MLB는 기본 표기가 ET로 나오기 쉬워서, 한국(KST) 기준으로 환산을 놓치면 시청 타이밍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중계사이트를 볼 때도, 그냥 “오늘 경기 있네?” 수준으로 끝내지 않아요. 일정 확인을 하나의 루틴처럼 돌려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화면에서 지금 시작하는 경기”를 정확히 잡는 것.

아래는 KST 사용자 입장에서, 국내 야구(KBO)와 MLB 둘 다 일정 확인을 안정적으로 하는 루틴입니다. 2026 시즌 기준으로도 맥락을 잡아두면 더 편해요. KBO는 2026년 3월 28일(토) 개막, MLB는 2026년 3월 25일(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즌이 시작한다고 MLB가 발표했거든요. 이런 시작일만 알게 돼도 “이 날짜쯤이면 포스트시즌 접근이냐, 정규시즌이냐” 같은 큰 흐름이 잡힙니다.

먼저, KST 환산부터 “한 번만” 확실히

MLB 일정에서 흔한 함정은 표기 자체예요. MLB 공식 일정은 표준 표기가 ET(미국 동부시간)이고, 한국 사용자는 KST로 환산해야 해요.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보통 13시간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을 매번 하는 습관”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고정되는지”예요. 예를 들어 ET로 오후 7시 경기라면 KST는 보통 그보다 13시간 더해지면서 다음 날 아침이나 오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경기 날짜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시간만 보고 날짜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많이 틀어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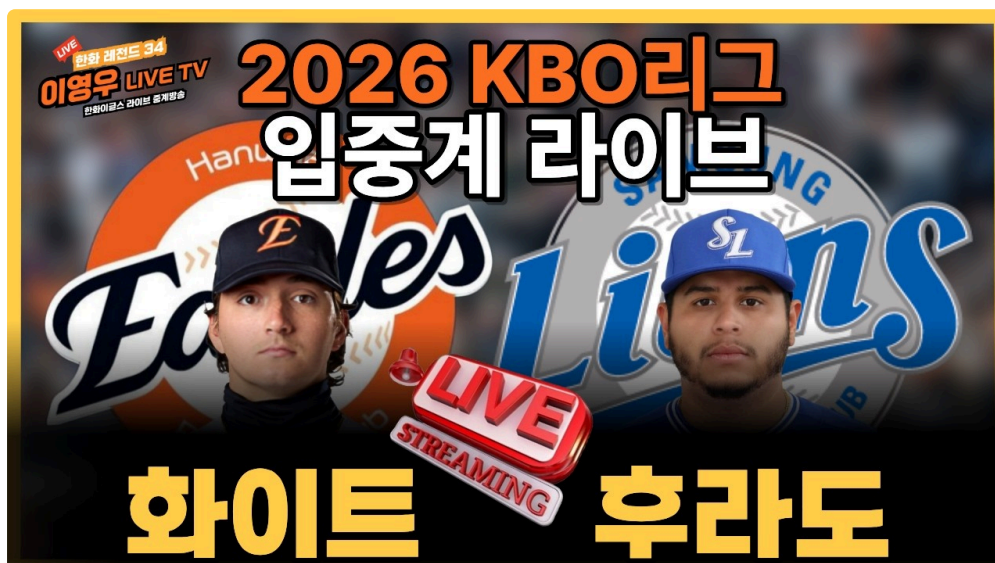
저는 MLB 경기 볼 때, 일정 화면에서 시간과 날짜를 같이 확인하고, 날짜가 바뀌는지 한 번 더 눈으로 체크하는 걸 루틴에 넣어둡니다. “아, 이건 KST가 내일 아침이구나”처럼요. 날짜까지 잡혀야 중계사이트에서 실제 스트림 틀 타이밍도 정확해져요.

야구중계사이트는 “최종 확인” 도구로 써요

야구중계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면 편할 때도 있지만, 저는 역할을 딱 나뉘요.

- 공식 일정은 “사실 확인”
- 야구중계사이트는 “내가 볼 방식 확인”

이렇게요.



KBO 쪽은 사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KBO의 공식 경기 운영/일정 페이지에서는 경기별 시간, 중계 채널, 장소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KBO는 일정 자체를 공식 페이지로 먼저 잡고,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중계 채널이나 실제 시청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MLB도 비슷해요. MLB 공식 일정에서는 경기 시간과 중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업데이트된다고 안내돼 있고, 일정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야구중계사이트는 “내가 여기서 보겠다”의 관점에서 검증에 쓰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뭔가 늦게 반영되거나 채널 표기가 애매할 때도, 최소한 경기 자체의 시작 시간은 확실하게 잡고 있으니까 대응이 빨라집니다.

KBO 루틴: 날짜-시간-중계채널-장소 순서로 훑기

KBO는 단일리그제고, 각 팀이 144경기를 치르는 구조로 공식 안내돼 있어요. 정규시즌이 끝나는 시점이나 경기량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편이라, 시즌 중에는 “오늘 날짜에 무슨 팀이 붙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흐름이 잘 이어집니다.

저는 KBO 일정을 확인할 때 다음 흐름으로 봐요. 길게 할 필요 없고, 딱 순서만 지키면 실수가 확 줄어요.

먼저 날짜별로 경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시작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야구중계](#) 중계 채널, 마지막으로 장소를 봐요. 장소까지 보는 이유는 가끔 “이 경기 오늘 어디서 열리는 거지?” 같은 생각이 들 때, 최소한 공식 정보로 다시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구는 같은 팀이라도 홈/원정에 따라 분위기나 중계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장소 확인이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KBO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별로 시간, 중계 채널, 장소 같은 항목을 확인하기 좋게 제공한다는 점을 루틴에 녹여두면 좋아요. 즉, 야구중계사이트를 틀기 전에 “공식 일정에서 내 시간표가 맞는지”만 먼저 확인해두는 겁니다.

MLB 루틴: ET 표기, KST 날짜 변환, 그리고 “어제 경기가 왜 안 보이지” 방지

MLB는 162경기 체제예요. 그리고 2026 정규시즌은 3월 25일에 시작한다고 발표됐고,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이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포스트시즌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루틴이 단순히 “오늘 경기 하나 확인”으로 끝나면 언젠가 타이밍이 꼬이기 때문이에요. 포스트시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일정이 훨씬 촘촘해질 수 있고, 특히 KST로 바꿀 때 날짜 이동이 한 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포스트시즌 시작일인데 야구중계사이트에 오늘 일정이 없네?” 같은 당황이 생기지 않게, ET 기준 일정을 먼저 잡아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제가 MLB 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ET 표기 시간을 KST로 옮길 때 날짜가 넘어가는지 확인하기.

둘째, “내 화면 기준 날짜”가 아니라 “공식 일정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걸 KST로 옮긴 결과를 내 날짜로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제 경기 시작 시간이 오늘로 착각했던 거네” 같은 실수가 줄어요. 시차는 늘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한국과 미국 동부 시차는 보통 13시간이니까, 단순히 시간만 보고 날짜를 놓치면 바로 어긋납니다.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일정이 꼬일 때, 체크는 짧고 빠르게

여기서 중요한 건 확인 절차를 너무 길게 만들면 오히려 귀찮아서 안 보게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최종 시청 전에 1분만”이라는 기준으로 짧게 확인해요.

아래는 제가 실제로 쓰는 짧은 확인 루틴이에요.

- 보고 싶은 리그가 KBO인지 MLB인지부터 확인한다
- KBO면 공식 일정에서 경기 시간과 중계 채널을 먼저 확인한다
- MLB면 ET 표기 시간을 KST로 환산해 날짜까지 맞춘다(보통 13시간 시차)
- 야구중계사이트에서 같은 경기의 중계 채널이 실제로 열리는지 확인한다
- 취소나 연기 같은 변수가 있으면, “이미 시작한 경기”로 착각하지 않고 재확인한다

이 다섯 줄이면 보통 충분해요. 특히 MLB에서 날짜까지 맞추는 항목이 핵심입니다.

“오늘 경기”가 맞아도, 내 시간표가 틀릴 수 있는 이유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내 기준 날짜”와 “공식 일정 기준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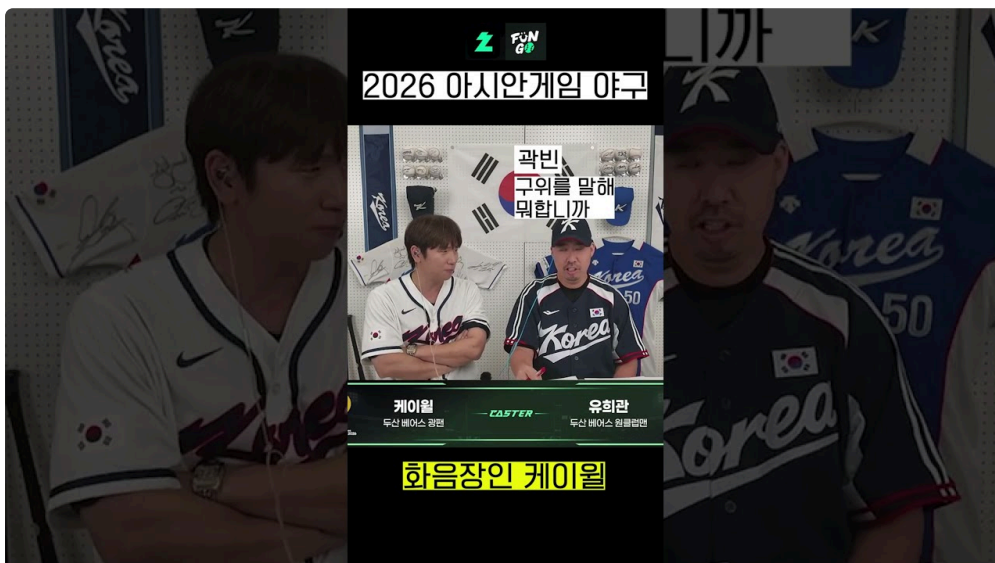
예를 들어 MLB는 ET 기반으로 일정이 안내되고, KST로 옮기면 밤 경기 시간이 한국에서는 다음 날 아침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야구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인데 왜 내 사이트에는 내일로 뜨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 못 하면, 야구중계사이트의 표기 문제라고 단정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확인을 할 때, 시간만 아니라 날짜를 같이 끌고 가요. “ET 날짜 + 시간 + 13시간”을 떠올리면서 KST 날짜를 먼저 정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 KST 날짜로 야구중계사이트를 확인하면 오류가 확 줄어요.

KBO는 상대적으로 이런 혼선이 덜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편이라, 공식 일정과 내 체감 시간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KBO도 경기 시간이 조정될 수는 있으니,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방송 시작”이나 “중계 채널” 표기를 같이 확인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포스트시즌 근처에서는 “일정 밀도”를 먼저 생각

정규시즌에서는 “하루에 한두 경기” 느낌으로 넘어가다가, 포스트시즌으로 가까워지면 경기 수가 늘거나 일정이 촘촘해질 수 있어요. MLB의 경우 2026 순위 구조에서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은 디비전시리즈로 직행,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방식이 안내돼 있거든요.



이게 왜 루틴과 연결되냐면, “그냥 오늘 경기 한 경기만 보면 되겠지” 모드로 들어가면, 다음 라운드 일정이 붙는 순간부터 시간을 헛으로 쓰기 쉬워서예요. 특히 KST면 날짜 이동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시즌에서 더더욱 공식 일정 기반으로 “내가 봐야 하는 경기들의 KST 시작 시각”을 미리 묶어보는 습관이 도움됩니다.

KBO는 144경기 체제라 시즌 흐름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정보 확인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포스트시즌 국면이 오면, 결국 MLB처럼 “밀도”가 올라가는 순간이 생기니까, 그때는 확인 루틴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실전 예시로 감 잡기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상황으로 풀어볼게요.

어떤 날 MLB 경기를 보려고 야구중계사이트를 열었는데, 내 화면에는 “내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불만을 내기보다는, 먼저 공식 일정에서 그 경기의 ET 표기 시간을 확인해요. 시간대가 저녁이면 KST가 다음 날 아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아, 내일로 보이는 게 맞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흐름이 루틴대로 굴러가면 실수가 거의 사라져요.

KBO에서는 반대로, “오늘 6시 시작인 줄 알았는데”처럼 시간이 틀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죠. 이때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시간과 중계 채널을 먼저 확인하면, 야구중계사이트 표기와 내 기대가 어긋난 지점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야구중계사이트는 결국 큐레이션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공식 일정 정보는 경기 운영 관점에서 정리된 값이어서 기준점이 됩니다.

야구중계사이트를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느낀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빨리 고르되, 한 번은 확인한다”는 태도. 어떤 사람은 중계사이트만 보고 들어서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식 일정만 붙들고 있어서 막상 중계를 못 켜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을 적당히 섞는 게 진짜 실전이에요. 공식 일정으로 경기와 시작 시간을 잡고, 야구중계사이트에서는 내가 그 채널로 실제 시청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KST 사용자라면 특히 MLB에서 날짜까지 맞추는 게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루틴을 “귀찮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

루틴이 무너지면 결국 다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길게 만들지 않아요. 대신 핵심을 한두 개만 고정합니다.

KBO는 “공식 일정에서 시간과 중계 채널을 확인”하는 걸 중심축으로 하고, MLB는 “ET를 KST로 바꾸면서 날짜까지 확인”을 중심축으로 둡니다. 나머지 정보는 필요할 때 더 보되, 일단 시작만 정확히 맞추는 데 집중해요.



이렇게 하니까, 야구중계를 틀기 직전에 불안해할 일이 줄더라고요. “오늘 시작이 맞나?”가 아니라 “이 경기는 여기서 보면 되겠다”로 마음이 정리됩니다. 야구는 몰입이 생명인데, 준비 단계에서 심리 소모가 줄어드니 더 재밌게 보게 돼요.

정리하면 간단해요. KST 사용자는 MLB의 ET 표기를 KST로 옮기는 과정을 빼먹지 않는 것, 그리고 KBO와 MLB 모두 공식 일정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 중계사이트를 최종 확인 단계로 쓰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일정 확인이 훨씬 편해집니다.